

위원회소식

위원회, 포기실 마을과 1사(社) 1촌(村) 맺어

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포기실 마을과 농촌사랑 1사(社) 1촌(村)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은 농협사랑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농촌사랑운동을 실천코자 맺게 됐다. 위원회와 자매결연 맺은 포기실 마을은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 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청주에서 중복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충북 청주 리호관광호텔에서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호(청주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 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어수용(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충북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8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중재위원 인트라넷 구축

위원회는 중재위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위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재위원 인트라넷을 구축, 지난 11월 6일 개통했다. 중재위원 인트라넷은 조정·중재심리와 관련한 자료실, 위원회 행사 게시판, 자유 게시판 등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2006년도 국정감사 수감

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국회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과 함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조준희 위원장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증가의 이유를 묻고,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시행 후 1년 동안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을 평가하고 포털이나 인터넷 매체에 의한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주제 정기세미나 개최

위원회 정기 세미나가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전북 완주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언론중재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점을 찾고자 마련된 이번 정기세미나에는 한위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양재규 법무상담팀장이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과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중재위원의 사회로 중재위원과 언론인, 포털 관계자 등 60여 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럽 언론피해구제 기관 시찰

조준희 위원장은 9박 10일간의 유럽 언론유관기관 시찰을 마치고, 지난 11월 16일 귀국했다. 위원장은 스위스의 노이에 쾰러허 자이팅, 오스트리아 커뮤니케이션청,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 등을 방문하여 현지 언론피해구제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의 언론중재제도와 위원회를 홍보했다.

사무처, 충북 동요마을에서 체련행사 가져

사무처는 지난 11월 10일 충북 음성 동요마을에서 추계 체련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체련행사는 1사(社) 1촌(村)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이천의 포기실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석한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사무처 직원과 포기실 마을주민들은 전통 생활박물관을 견학하고 족구시합, 떡메치기와 조롱박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나누었다.

김정기(서울 제2중재부), 박석태(경기중재부) 위원 위촉

문화관광부 장관은 김정기(서울 제2중재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과 박석태(경기중재부,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두 위원은 지난 10월에 사퇴한 이상현(서울 제2중재부), 우제찬(경기중재부) 위원의 후임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오는 2008년 9월 1일과 2008년 8월 31일까지다.